

시즌6
제4차

| 국어는 이감 |

이감 국어

모의고사

예비평가 지문 분석

● ▲ 이감

[2021학년도 시준6 제4차 예비평가 지문 분석]

[16~19] 현대소설 : 황석영, 「객지」

* 수록 지문 평가

1970년대에 발표된 작품으로, 간척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 쟁의를 다루고 있다. 사측과 노동자 측의 대립을 다루면서도, 노동자들의 입장 역시 둘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대화에 나타난 각 인물들의 입장과 심리를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문 마지막 부분에서 사건의 실상이 드러나므로, 이에도 주의를 기울여 읽도록 하자.

* 수록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간척 공사장에서 쟁의가 발생하여 노동자들이 근처 산으로 올라가 파업 농성을 벌인다. 동혁은 다음 날로 예정된 국회 의원단 답사 때까지 농성이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회유 방송이 들려오고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이자 농성 노동자들이 동료하기 시작한다.

⇒ 국회의원들이 오면 노동자들이 원하는 조건을 사측에서 공적으로 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혁은 국회의원들이 오는 다음날까지 파업을 지속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사측의 약속에 공적인 효력을 부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노동자들을 회유하고 분열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지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당대의 시대 분위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시에는 노동법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이고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노동자들의 산발적인 투쟁 역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해 주는 척하면서 반발을 무마한 뒤, 파업의 주동자들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사측의 약속은 쟁의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약속이 뒤집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작업하는 사람들의 단조로운 장단 타령 소리를 듣고 있던 한동이가 불만스런 목소리로 투덜댔다.

“우린 뭐야..... 남 좋은 일만 시켜 줬잖아, 저기선 신나게 돈벌일 하는데.....”[→ ‘남 좋은 일만 시켜 줬’다는 것은, [앞부분 줄거리]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회유 방송’과 연관된다. 파업에 참가한 자신들은 일당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남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슨 이득이냐면.....]

“휴식 시간이 꽤나 길던걸, 줄곧 지켜봤는데 그들에서 낮잠을 자는 녀석들두 있었어.”[→ 일하는 중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문 뒷부분에 나오지만, 휴식 시간을 보장받고 정해진 시간 동안만 일하는 이러한 ‘시간 노동제’는 농성 노동자들이 요구한 조건이다.]

⇒ 지문에서 간척 공사장의 노동자들은 날품팔이, 즉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루 일하는 만큼 하루치 돈을 버는 것이므로, 농성에 참가하여 일을 쉬게 되면 그만큼 돈벌이를 못 하게 된다. 또한 ‘시간 노동제’는 농성 참가자들이 내건 조건인데, 정작 농성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농성 참가자들의 마음이 흔들린다. 농성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런 심리적인 갈등을 일으키려는 것이 사측의 의도였을 것이다.

관술이도 말했다.

“기왕에 나왔으니 말이지만..... 이런 데선 가만 앉아 주는 떡이나 받아 먹는 놈들이 약은 거야.”

⇒ 전면에 나설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쟁의를 지켜보며 노동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게 약은 행동이라는 거다. 파업 참여에 대한 후회가 살짝 드러나 있다.

“감독조 새끼들만 없었더라두 해볼 만했었지, 그 새끼들이 미워서 한번 붙어 보자는 거였지.”

⇒ 노동 쟁의의 원인에 감독조에 대한 반감이 있었음을 보여 주는 말이자, 그 반감 때문에 쟁의에 참여한 것에 대한 후회를 담고 있는 말이다.

장 씨가 그들의 말끝에 덧붙였다.

“봤나들? 저런 정도라면 호화관[→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일세, 내 여태껏 여러 공사판엘 다녀 봤지만, 이렇게 큰 성과를 본 쟁의는 없었네.”

⇒ 장 씨는 이번 쟁의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2실 사람이 말했다.

“성과가 있을지 없을진 두고 봐야 하구요. 모두들 생각이 있을 거니까 따라서 같이 행동하면 되겠조.”

⇒ 2실 사람은 장 씨와는 다르게 생각한다. 사측이 말한 대로 요구 조건이 수용될지 아닐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장 씨가 담배를 말고 있다가 흐트러뜨리며 2실 사람을 핀잔했다.

“내 원 참, 대답하기는..... 이 사람아 뭘 두고 봐? 눈이 없는가, 귀가 없는가? 저기 작업장을 보란 말일세.”

⇒ 지켜볼 것도 없이, 노동 환경이 개선된 것이 분명하다는 의미다. 농성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저쪽에서 속임수를 쓰는지 어찌 알아요?”

⇒ 장 씨는 작업에 복귀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2실 사람은 현장의 상황이 사측의 속임수일 수 있으니 믿을 수 없다고 본다. 두 사람의 생각이 부딪히고 있다.

“귀찮아서 말하기도 싫으니, 우리네는 성미가 유해 놔서[→ 성품이 부드럽고 순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짓[→ 쟁의]은 내키질 않았네만, 노임이 올라 주기만 기다렸네.”

⇒ 장 씨는 쟁의가 처음부터 내키지 않았으며, 노임이 오른 이상 더 쟁의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낮은 노임이 이유가 되어 쟁의에 참여했지만, 노동 환경의 근본적인 개선을 바라기보다는, 사측이 그때그때 내거는 미끼에 만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다.

“저 늙은이가.....”[→ 장 씨를 가리키는 말이다.]

대위가 두 팔을 쳐들어 몸을 일으키려다가 옆으로 쓰러졌다.[→ 대위는 농성 도중 입은 부상으로 몸이 아픈 상황이다.]

“아직 돼지지 못하구선..... 저 꼴이니 아직도 공사판엘 붙어 있지.”

⇒ 쟁의를 끝내고 작업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장 씨를 대위가 비난하고 있다. 장 씨가 계속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 노동자들은 더욱 옹성될 것이고, 그러면 단결력이 와해되어 결국 쟁의는 끝나고 말 것이다. 이 기회에 사측으로부터 노동 조건의 개선을 공적으로 못 박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장 씨의 이런 반응이 답답함을 수밖에 없다.

장 씨가 곧 잠잠해졌다.[→ 본인 말마따나 성미가 유해서인지, 나이 지긋한 장 씨는 젊은 대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친 말에도 더 이상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입을 다물으로써, 자칫 싸움이 날 듯한 상황을 피하고 있다.] 동혁은 아무 말 없이 장 씨의 연초 째지를 끌어다 담배 한 대를 말아 돌려줬다. 장 씨가 입에 물자 동혁은 불을 붙여 주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 심정은 잘 알겠어요.”[→ 동혁은 쟁의의 주도자 중 한 사람이며, 쟁의를 끝내기 바라는 장 씨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태도를 보이

고 있다.]

“나는..... 뭐, 모두 무사하게 끝나 같이 일하게 되길 바라구 하는 얘기가 아닌가, 저 사람 기분을 건드릴 생각은 없었다네.”[→ 동혁의 다정한 태도에 장 씨가 자신을 변호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다.]

(중략)

정상에서 똑바로 위치한 곳에 매점이 내려다보였는데, 문으로부터 노랑 헬멧을 쓴 대여섯 명의 사무실 사람들과 아침에 돌아가지 않고 남아 있던 십여 명의 경찰들이 몰려나왔다. 매점 옆의 5합바(=건설 현장에 마련되어 있는 식당을 뜻하는 일본어로, 여기서는 식당 및 숙소를 겸한 노동자들의 편제 단위가 되고 있음)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나와 공터를 지나 언덕 아래로 내려갔다. 한동이와 몇몇 인부들이 떠들었다.

“봐요! 감독조 새끼들이 짐을 싸들고 쫓겨 가는걸.”

“차를 탔어.”

“공사장 밖으로 아주 꺼질 모양인데.”

어제 동혁과 함께 인부들의 앞장을 섰던 3합바 고참 인부가 동혁에게로 걸어왔다. 그는 웃는 낯이었다.

“어떻게 할 셈이요?”

⇒ 시간 노동제도 지켜지고 노임도 오른 상황에서, 쟁의의 원인이 되었던 감독까지도 쫓겨 가고 있으니, 그래도 쟁의를 계속할 것인지 묻는 것이다. 앞의 ‘웃는 낯이었다’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내심으로는 요구 조건이 다 수용된 이상 여기서 쟁의를 그만두자는 뜻을 담고 있을 것이다.

“글쎄요, 여러분들 내키는 대로 해야겠지만, 내 생각은..... 내려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저 사람들은 임시 조치로 우릴 피어 내리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중에 올라온 사람들의 말[→ 지문에 제시되지 않은 앞부분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뒤늦게 농성에 합류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왔는데, 그들은 회사 측에서 농성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눈치라고 전해 준다.]을 의심하고 있어요.”

⇒ 동혁은 사측의 제략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노동자들을 회유하여 쟁의를 중단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으며, 막상 쟁의를 끝내면 사측은 다르게 나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겠다.

“떡밥[→ 노동자들을 피어서 쟁의를 그만두게 하려고 던진 미끼]이 분명하니까.”

하며 대위가 말했다. 그는 오한과 헛구역질로 거의 녹초가 되어 있었으나 보통 때의 성깔은 죽지 않은 듯했다.

“떡밥이구 뭐구, 우리가 속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형씨 말고도 환자가 셋이나 되는데 출혈이 심하오. 우선 치료를 받아야지.”

⇒ 3합바 고참 인부의 말이다. 중략 부분에서 사측은 환자들을 내려 보내 치료를 받도록 하라고 전한다. 도의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 역시 노동자들의 결속력을 와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내일까지 버티지 못한다면 완전히 저쪽의 놀림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국회의원들이 답사를 올 때까지 농성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이다.]

“환자는.....”

하며 고참 인부가 주저했다.[→ 환자를 내려 보내라는 사측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다.] 동혁은 떨고 있는 대위를[→ 대위는 열이 심하게 나서 온 몸을 떨고 있는 상황이다.] 한동안 내려다보고 나서,

“내려보내야죠.”

“싫소!”

대위가 눈을 크게 부릅떴다. 고참 인부가 짜증을 냈다.

“그건 헛강이요. 이 친구야.”[→ 쓸데없이 헛된 오기 부리지 말라는 거다.]

“내려가쇼. 형이 할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씨[→ 동혁을 가리킨다.]까지 그러긴가?”

“형은 여기서 쓸모가 없어요.”[→ 몸 상태가 나쁜 대위를 내려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말한 것이다.]

동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대위는 한마디 더 하고 싶은 듯했으나 힘을 잃은 듯이 쳐들었던 머리를 뒤로 떨어뜨렸다.[→ 동혁의 말대로 자신의 처지는 농성 현장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

“내려가서 확실한 보장을 얻어 갖구 올라오겠소.”[→ 대위는 자신이 더 이상 농성에 참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쟁의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몫은 다하겠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고참이 환자들을 나를 사람들을 찾자, 인부들이 우르르 뛰어왔는데, 그는 네 사람을 지명했다. 그들은 대위를 이불채로 들어 올렸고, 대위가 동혁을 마주 바라보았다. 동혁은 그에게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대위가 입술을 움직거렸지만, 뭐라고 말하는가 들리지는 않았다. 소장은 네 사람의 환자를 떠메고 산비탈을 내려오는 인부들의 작은 무리를 흡족하게 바라보았다.

“제깟 것들이.....”[→ 소장의 혼잣말이다. 노동자들을 낮잡아 보고 그들이 농성을 해 봐야 사측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소장은 혼자서 빙긋 웃었다. 감독조를 짐짓 3공사장으로 보내길 잘했다고 그는 생각했다.[→ 감독조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농성 노동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떨어진 곳으로 잠시 보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은 그들이 없으면 인부들을 통솔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원하는 대로 모두 수직수직 들어주고 나면 길 잘못 들인 강아지 새끼처럼 또 무엇을 달라고 보챌지 몰라 불안할수록, 더욱 감독조는 필요했다.[→ 노동자들에 대한 소장의 생각이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한 번 들어주면 또 다른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소장이 감독조들을 통해서 인부, 즉 노동자들을 억압적으로 통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잠잠해질 때까지 당분간 보냈다가 인부들과는 낯선 다른 패들로 교대시킬 뿐이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감독조를 교체한다는 말이었다.] 현재 노임도 올렸고 시간 노동제도 실시하고 있는 척할 수밖에 없지만, 우선 내일의 행사[→ 국회의원들의 현장 방문]를 위해 숨 좀 돌려 보자는 게 그의 속셈이었다.[→ 사측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의도지만, 농성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일단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을 회유하기 위한 술책을 쓰다가, 상황이 마무리되면 다시 예전대로 돌아갈 속셈인 것이다.] 그다음엔 주동자들을 먼저 아무도 모르게 경찰에 데려다가 책임을 물어 따끔하게 본때를 보인 후,[→ 경찰이 파업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 사측의 편을 들어줄 것임을 이미 예상하고 있다.] 여비나 두둑이 주어 구슬리며 탄 지방으로 쫓아 보낼 작정이었다.[→ 노동자들을 강압한 후 회유하고 분열시키는 것이 소장의 계획이다.]

⇒ 지문 앞부분이 노동자들의 대화로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 부분에서 소장의 속마음은 서술 형태로 되어 있다.

[20~25] 사회-과학 : 쌍곡형 할인 양상과 중독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경제학 - 행동 경제학

시점 간 선택, 행동 경제학, 할인율, 쌍곡형 할인 양상, 시간적 비정합성, 현재 지향 편향, 중독

과학 - 생리학 - 신경 생리학

중독, 대뇌의 신경망, 도파민, 복측 선조체, 복내측 전전두피질, 외측 전전두피질, 해마, 편도체, 위상성 도파민, 강직성 도파민, 인지 행동적 방법, 보상 다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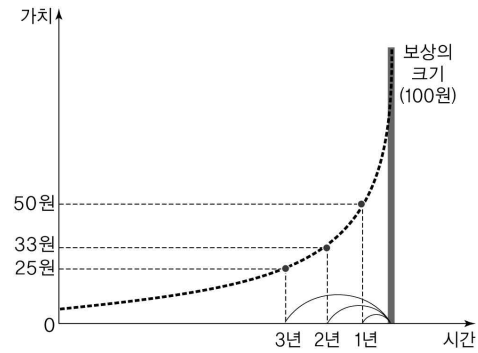
* (가) 지문 분석

문단1 : 시점 간 선택

- 1)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해지기까지 혹은 외국어 공부를 시작해서 유창하게 말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 한 번 시작한 행동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들 중에는 그 결과가 시간이 지나서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 인간 세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이 이어지려나 보다.
- 2) 이렇게 선택 시점과 보상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떨어져 있는 경우의 의사 선택을 **‘시점 간 선택’**이라 한다.
⇒ ‘현재’ 선택한 것의 보상이 즉시 주어지지 않고 ‘미래’에 주어지는 경우의 선택을 ‘시점 간 선택’이라고 한단다.

문단2 : 미래 보상의 쌍곡형 할인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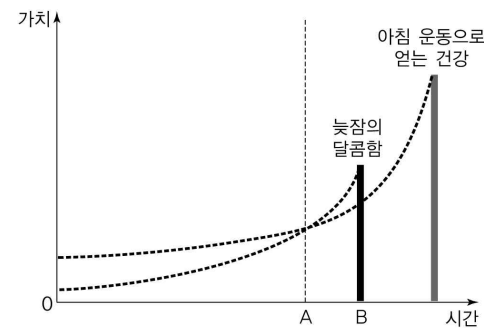
- 1) **‘행동 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래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받는다면 그 보상의 가치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보상을 **‘할인된 가치’**[→ 미래에 실제로 받게 될 가치보다 깎인 것]로 인식한다.
⇒ 당장 만 원을 받아서 쓰는 것과 1년 뒤에 만 원을 받아서 쓰는 것의 가치는 다를 것이다. 뿐만 아니라, 1년 뒤에 정말 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불확실성’은 ‘가치의 할인’으로 반영된다.
- 2) 보상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할인되는 정도[→ 깎여 나가는 비율]를 **‘할인율’**이라고 한다. 즉 한 달 뒤 1만 원의 현재 가치가 7천 원[→ 1만 원 - 3000원 = 7000원]이면 **‘할인율은 30%’**[→ $(3000/1만) \times 100 = 30\%$]인 것이다.
⇒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은 ‘할인율’로 반영된다.
‘맥락 짚기’ 그렇다면 ‘선택과 보상 사이의 시간적 거리’와 ‘할인율’은 항상 같은 비율로 변화할까? 즉 직선상에서 움직일까?
- 3) 그런데 선택 시점과 보상 시점 간의 거리가 점차 멀어질 때 **‘거리가 가까운 초기’**[→ 선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현재 가치’**가 급격히 줄어들고[→ 할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멀어질수록[→ 선택 이후 보상을 받기까지 오래 걸릴수록] 현재 가치가 감소하는 비율이 점차 완만해지는[→ 할인율이 천천히 높아지는] **‘쌍곡형 할인 양상’**이 나타난다. 예컨대 현재 가치가 1년 후 100원에 대해 50원, 2년 후 100원에 대해 33원, 3년 후 100원에 대해 25원인 양상이다.
⇒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떠올려야 한다. 보상 시점이 현재와 가까울 때에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다가 먼 시기가 될수록 하락의 정도가 완만해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을 게다.



문단3 : 시간적 비정합성을 낳는 현재 지향 편향과 충동성

- 1) 쌍곡형 할인 양상은 작은 보상과 큰 보상 사이의 선택에서 **‘시간적 비정합성’**을 낳기도 한다.
‘맥락 짚기’ ‘시간적 비정합성’은 뭘까?
- 2) 보상들이 선택 시점에서 멀 때[→ ‘하루 뒤’이라고 하자.]에는 큰 보상까지의 시간[→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해지기까지의 시간’이라고 하자.]이 더 멀어도 큰 보상을 선택[→ 건강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운동을 선택]하는데, 초기의 높은 할인율이 미처 반영되지 못할 정도로 **‘작은 보상의 시점’**[→ 늦잠의 달콤함을 보상으로 얻게 되는 시점]이 **‘선택 시점’**[→ 알람이 울릴 때]과 가까우면 **‘작은 보상’**[→ 달콤함을 가져오는 늦잠]을 택하게 되는 것이다. **‘하루 전’**[→ 보상들이 모두 선택 시점에서 멀 때]까지만 해도 **‘늦잠’**[→ 작은 보상을 가져오는 선택]보다 **‘아침 운동’**[→ 큰 보상을 가져오는 선택]을 택했던 사람이 **‘아침 알람이 울리는 시점’**[→ 작은 보상의 시점이 선택 시점에 가까울 때]에 이르러서는 결국 **‘늦잠’**[→ 작은 보상]을 선택하는 것이 쌍곡형 할인 양상의 한 사례이다.

‘주목’ 중요한 부분이니 그래프로 이해해 보자.



⇒ ‘알람이 울릴 때’는 A의 우측에, ‘하루 전’은 A 좌측에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다.

0~A [→ 하루 전]	- 보상들이 선택 시점에서 멀 - 두 보상에 모두 초기의 높은 할인율이 반영됨	아침 운동 선택
A~B [→ 알람이 울릴 때]	- 작은 보상의 시점이 선택 시점과 가까움 - 작은 보상에 초기의 높은 할인율이 모두 반영되지 않음	늦잠 선택

‘주목’ 결국 1)에서 말한 ‘시간적 비정합성’이란, ‘미래 보상’의 ‘현재 가치’가 ‘쌍곡형으로 할인’되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 큰 보상과 작은 보상 중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달라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인 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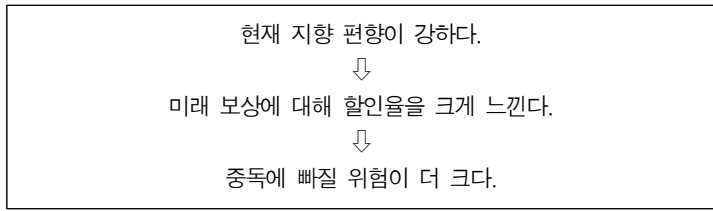
- 3) **‘이’**[→ ‘시간적 비정합성’]는 다른 어떤 시점보다 **‘현재’**를 중시하는 심리인 **‘현재 지향 편향’**의 결과로, **‘이’**[→ ‘현재 지향 편향’]는 게임 중독과 같이 당장의 즐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자신을 내맡기는 상태인 **‘중독’**의 원인이 된다.

⇒ ‘현재 지향 편향’은 ‘시간적 비정합성’을 낳기도 하고, ‘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4) 특히 충동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현재 지향 편향이 강하여 **‘미래 보상’**에 대한 할인율을 크게 느끼는[→ ‘미래의 보상이 지니는 현재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는] 편이어서 중독[→ ‘즉각적인 보상의 즐거움’을 선택하는 상태]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

⇒ 이런 느낌을 떠올려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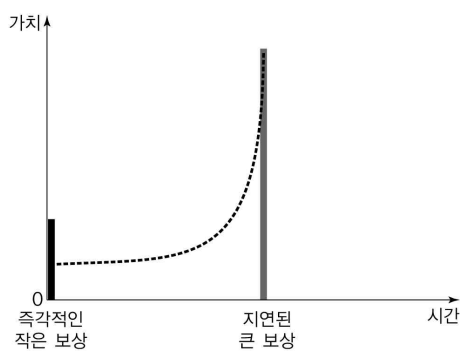
문단4 : 충동성을 감소시키는 방법

- 1) 한편 한 실험에서 오늘 받을 9천 원 [→ 즉각적인 작은 보상] 또는 일주일 후에 받을 1만 1천 원 [→ 지연된 큰 보상] 중 무엇을 선호하는지를 묻는 경우에 비해 십 원 단위까지 제시한 [→ 보상의 크기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한] 결과 충동성이 감소하였다.
⇒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면 충동성이 감소한다.
- 2) 보상의 지연된 시간 [→ 1)의 사례에서 ‘일주일 후’에 주의 집중을 하면 즉각적인 작은 보상 [→ ‘9천 원’]에 더 끌리지만, 십 원 단위까지 제시하여 보상의 크기에 집중하도록 하면 충동성이 감소하여 지연된 큰 보상 [→ ‘1만 1천 원’]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 ‘지연된 큰 보상’에는 ‘지연된 시간’과 ‘보상의 크기’라는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중 후자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연된 시간’에 대한 주의 집중을 줄이고 ‘보상의 크기’에 집중시킨다는 얘기겠다.
- 3) 또 다른 실험에서 ‘180일 후 해외여행을 갈 것이다.’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와 ‘180일 후 파리 에펠탑에서 야경을 볼 것이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이 기분을 좋게 하여 충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뭐 그렇단다.

* (나) 지문 분석

문단1 : 신경 생리학적 이상의 고착으로 인한 중독 증상

- 1) 도박이나 약물 등에 중독된 환자들은 시점 간 선택의 상황에서 지연된 큰 보상보다 [→ 미래의 큰 보상보다] 즉각적인 작은 보상을 선택 [→ 중독 물질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
⇒ 그래프로 설명하자면 이렇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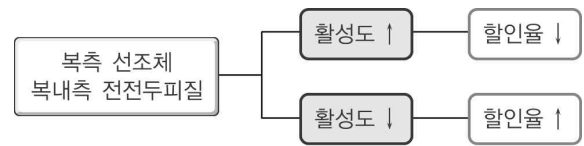


- 2) 신경 생리학적으로 볼 때 중독 환자들에게는 시점 간 선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뇌의 신경망에서 이상이 발견되거나, 대뇌에서 흥분 작용과 관련하여 분비되는 화학 물질인 도파민의 분비에 불균형이 나타난다.
⇒ 중독 환자의 뇌를 살펴보니 대뇌 신경망 이상이나 불균형한 도파민 분비 등으로 인해, ‘시점 간 선택’의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게다.
- 3) 이 [→ 대뇌 신경망 이상, 도파민 분비 불균형]는 중독의 결과인 것이 아니라 선행 인자인 것 [→ 중독으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가 아니라, 반대로 중독을 야기하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결국 중독은 신경 생리학적 특성이나 이상이 만성적으로 고착화된 결과인 것이다.

⇒ 결국 중독 때문에 대뇌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대뇌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중독이 발생한다는 얘기겠다.

문단2 : 중독 환자의 신경 생리학적 특성

- 1) 신경 생리학 실험에 의하면 중독 환자 중에는 대뇌에서 가치 평가와 관련한 신경망을 이루는 부위인 ‘복측 선조체’와 ‘복내측 전전두피질’의 활성화가 낮은 경우가 있다.
⇒ 그렇다면 이런 중독 환자들은 ‘현재 보상’과 ‘미래 보상’의 가치를 제대로 비교하는 데에 문제가 있겠다.
[참고] ‘복측 선조체’와 ‘복내측 전전두피질’은 행동의 성공 가능성을 계산하고, 그 결과가 기대를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부위이다.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거나 긍정적 경험을 할 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보상계’라고도 불린다.
- 2) 이 부위들 [→ ‘복측 선조체’와 ‘복내측 전전두피질’]이 덜 활성화된 환자일수록 지연된 큰 보상이 잘 표상(表象)되지 못해서 [→ 가치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보통 사람들에 비해 할인율을 높게 적용 [→ 미래의 큰 보상을 현재의 매우 작은 가치로 환산]한다.
⇒ 정리하면 이렇다.



- 3) 또한 즉각적인 보상과 지연된 큰 보상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가 비슷해서 선택이 어려울 때 [→ 할인율이 적용된 미래 보상과 현재 보상의 가치가 비슷할 때], 어떤 중독 환자들의 경우 인지 조절과 관련한 신경망을 이루는 ‘외측 전전두피질’의 활성화가 낮았다.
⇒ 가치 평가의 문제와는 별도로, 중독 환자들의 인지 조절 관련 신경망이 낮은 활성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 4) ‘외측 전전두피질’은 충동성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부위로, 이 부위가 덜 활성화될수록 즉각적인 보상에 충동적으로 이끌리는 경향이 강해진다.
⇒ 정리하면 이렇다.



[Rew] 강한 충동성이 중독에 빠질 위험을 높인다는 것을 이미 (가)의 문단3-4)에서 확인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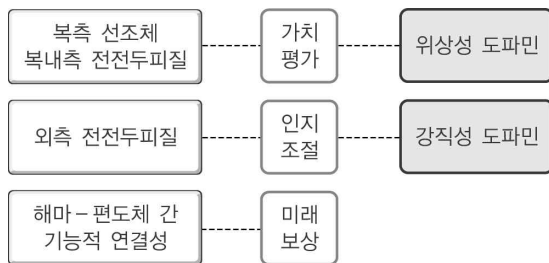
- 5) 한편 중독 환자들 중 일부는 미래 사건에 대한 단서가 제공됐을 때 보통 사람들에 비해 미래 조망과 관련한 신경망을 이루는 ‘해마’와 ‘편도체’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이 덜 강화되었다.
⇒ ‘해마’와 ‘편도체’의 기능적 연결성이 덜 강화되면 중독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 6) 이 신경망의 [→ ‘해마’와 ‘편도체’ 사이의] 기능적 연결성이 강화될수록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이 기분을 좋게 하여 지연된 큰 보상에 따르는 결과를 예상하게 하고 충동이 억제된다.
⇒ 정리하면 이렇다.



[Rew] (가)의 문단4-3)을 떠올려야겠다.

문단3 : 또 다른 중독의 원인인 불균형한 도파민 분비

- 1) 위상성 도파민과 강직성 도파민의 분비가 불균형하여 위상성 도파민이 과도한 것도 중독의 원인 중 하나이다.
⇒ 위상성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강직성 도파민과의 균형이 무너지면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다.
- 2) **위상성 도파민**은 일시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분비되는 것이며, **강직성 도파민**은 약하고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분비되는 것이다.
⇒ 구분해서 챙기면 그만이겠다.
[참조] 위상성(Phasic)이란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뜻인 반면, 강직성(Tonic)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다.
- 3) 중독 환자들 중에는 중독된 물질이 눈앞에 있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치 평가와 관련한 신경망[→ 문단2-1)에 언급된 바 있다.]에 위상성 도파민 분비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위상성 도파민과 강직성 도파민의 균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미래 보상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지연된 큰 보상보다 즉각적인 보상에 더 주목하게 된다.
⇒ 이 경우 지연된 보상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즉각적인 보상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Rew] 문단2-1)을 떠올려 보자.
- 4) 보통 사람들도 이러한 충동성[→ 지연된 큰 보상보다 즉각적인 보상에 끌리는 충동성]을 어느 정도 보이지만, 이는 인지 조절과 관련한 신경망에 지속적으로 분비[→ 문단2-3)에 언급된 바 있다.]되는 강직성 도파민에 의해 통제된다.
⇒ 위상성 도파민과 강직성 도파민의 균형이 중요하겠다.
[주목] 문단2와 문단3의 내용을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한다.



문단4 : 인지 행동적 방법

- 1) 신경 생리학적 문제가 있는 중독 환자가 느끼는 할인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독 환자가 지연된 보상의 현재 가치를 과도하게 깎는 것을 막기 위해] 약물 치료 외에 **인지 행동적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 그렇겠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 2) 미래의 즐거운 모습을 상상하게 하거나 주의 집중을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면 중독 물질에 대한 갈망이 줄고 충동성이 줄어든다.
[Rew] (가)의 문단4에서 사용된 방법들을 떠올렸다면 충분하겠다.
- 3) 또 다른 방법으로 **‘보상 다발’**이 있다. 이는 현재의 작은 보상 대신에 지연된 큰 보상을 지금 바로 선택[→ 즉각적인 작은 보상 대신, 지연된 큰 보상을 선택]한다면 앞으로 반복해서 지연된 큰 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제시하는 방법이다. 지연된 보상들을 묶어 더 크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 환자가 지연된 보상을 훨씬 더 크게 느끼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지연된 보상을 선택하게 만드는 방법이겠다.

[26~30] 기술 : 트랜잭션과 장애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기술 - 데이터베이스 -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 원자성, 버퍼, 커밋, 지속성, 데이터 복구, 일관성, 독립성, 물리적 장애, 논리적 장애, 장애, 로그 파일, 로그, 재실행, 되돌리기

* 지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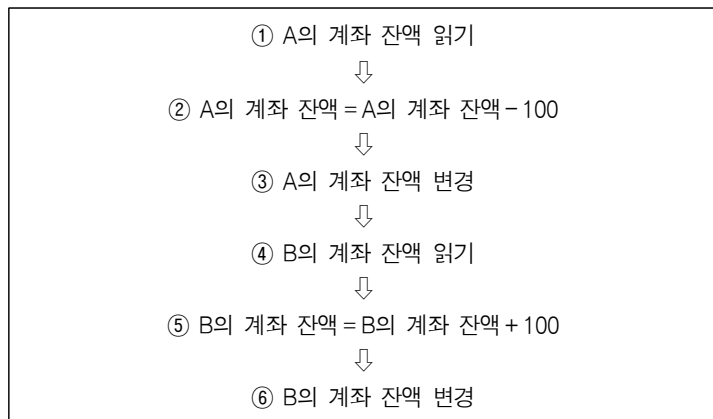
문단1 : 트랜잭션의 정의

- 1) A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100원을 이체하는 사용자 요청이 있다고 하자. 이를 위해 데이터베이스에서 A의 계좌 잔액을 읽고 100원을 뺀 잔액으로 변경하고 B의 계좌 잔액을 읽고 100원을 더한 잔액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

⇒ 현실에서 A가 B에게 직접 100원을 건네주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겠지만, 데이터베이스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차근 차근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보다.

- 2) 이렇게 계좌 이체와 같은 하나의 작업 단위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를 읽고 씬하고 변경하는 연산들의 집합을 트랜잭션이라 한다.

⇒ 하나의 '트랜잭션'은 하나의 작업 단위이며 다음과 같이 여러 연산들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순서가 중요하겠다.



문단2 : 트랜잭션의 네 가지 요건 - '원자성'과 '지속성'

- 1) 트랜잭션은 '원자성'과 '지속성'을 지녀야 한다.

[맥락 짚기] '트랜잭션'이 확보해야 하는 요건들을 살펴보자.

- 2) **[원자성]**이란 연산들이 진행되는 도중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트랜잭션이 데이터베이스에 끝까지 모두 반영되거나 혹은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트랜잭션이 수행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되거나] 둘 중 하나로만 동작하도록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문단1의 '트랜잭션'은 ③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결과적으로 ① 이전으로 되돌아가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되돌린 후 ⑥까지 수행되도록[→ '끝까지 모두 반영되거나'] 구현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맥락 짚기] '원자성'은 하나의 트랜잭션을 이루는 많은 연산들이 진행되는 도중에 발생하는 장애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한마디로 트랜잭션은 부분적으로만 수행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고, 따라서 '원자성'이란 더 이상 쪼개는 것이 불가능한 속성을 가리키는 셈이었다.

- 3) 인→ 원자성]를 위해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변수→ 'A의 계좌 잔액'이라는 변수와 그 값→ A의 계좌 잔액]들을 읽어 임시 메모리인 버퍼에 적재하여 연산들을 진행하고→ A의 계좌 잔액 = A의 계좌 잔액 - 100], ...

⇒ 결국 모든 연산은 '버퍼'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얘기다.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연산을 수행하면 '원자성'을 확보하기가 힘든가 보다.

- 4) 연산들이 모두 종료된 후 '커밋'을 수행하는 방식을 따른다. **[커밋]**은 버퍼에 있는 변경된 변수값→ 변경된 'A의 계좌 잔액'들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값들을 변경하여 저장하는 일을 말한다.

⇒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변수값이 모든 연산을 거친 '최종 결과'만이 반영된다는 얘기겠다. 연산 자체는 '버퍼'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산 도중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트랜잭션이 수행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이 된다.]. 즉 '원자성'을 확보하기가 수월하겠다.

- 5) 트랜잭션이 긴 경우에는 [최종 커밋 이전에] 중간에 한 번 더 커밋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뭐 그럴 수 있겠다.

- 6) **[지속성]**은 어떤 장애가 발생하든 트랜잭션의 결과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장애 발생 시 데이터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설령 은행 전산망이 박살 나는 한이 있더라도, A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100원이 이체되는 '트랜잭션'의 결과는 반드시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보존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맥락 짚기] '지속성' 역시 '원자성'과 마찬가지로 개별 트랜잭션이 확보해야 하는 요건이었다.

문단3 : 트랜잭션의 네 가지 요건 - '일관성'과 '독립성'

- 1) 또한 트랜잭션은 '일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관성]**은 계좌 이체 전후로 두 계좌 잔액의 합이 같아야 하는 것처럼, 트랜잭션 수행 전후의 데이터베이스 상태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상식적인 얘기다. 트랜잭션이 종료된 이후에 어떤 장애로 인하여 A의 계좌 잔액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B의 계좌 잔액만 100원 늘어났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100원 손해다. 대형 사고다.

- 2) 또한 **[독립성]**은 각 트랜잭션이 그 종료 전까지 다른 트랜잭션의 수행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쉽게 말해서 다른 놈의 연산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다.

[맥락 짚기] '원자성', '지속성', '일관성'이 주로 개별 트랜잭션이 확보해야 하는 요건이라면, '독립성'은 여러 트랜잭션들 간에 확보해야 하는 요건이었다.

- 3) A의 계좌 잔액과 같은 변수를 각각 따로 버퍼에 적재해 두고 진행하는[→ 동일한 변수를 읽고 관련 연산을 진행하는]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커밋이 중첩되면서[→ 서로 다른 트랜잭션이 동일한 변수에 대하여 각자의 연산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려는 대형 사고가 벌어지면서] A의 계좌 잔액에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 예를 들어 'A의 계좌 잔액'이 딱 100원일 때 'A가 B에게 100원을 이체'하는 트랜잭션 T1 직후에 'A가 C에게 100원을 이체'하는 트랜잭션 T2가 요청되었다고 하자. 이때 T1, T2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T1과 T2는 모두 'A의 계좌 잔액'[→ 100원]을 읽고 이를 각각 버퍼에 적재하게 된다. 그 결과 두 트랜잭션이 함께 '커밋'된다면 A는 B와 C에게 전부 100원씩 건네준 셈이다. 실제로는 C에게는 줄 돈이 남아 있지 않은데 말이다.

- 4) 그래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칙이 필요한데,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은 트랜잭션들을 순차적으로→ 요청된 순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 그렇겠다. T1의 '커밋'까지 완료된 이후에야 T2를 시작한다면 '독립성'이야 당연히 보장될 거다. '커밋'이 중첩될 일이 없을 테니 말이다[→ 물론 이 경우에는 T2가 읽은 'A의 계좌 잔액'은 0원이 되는 만큼 -100의 연산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게다.].

[맥락 짚기]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결국 '트랜잭션'은 다음 네 가지 요건을 확보해야만 한다.

원자성	트랜잭션은 끝까지 반영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한다. (all or nothing)
지속성	트랜잭션의 결과는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일관성	트랜잭션 수행 전후에 데이터베이스의 상태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독립성	각 트랜잭션은 서로의 수행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문단4 : 데이터 복구를 위한 로그 파일 참조

- 1)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시스템 고장이나 정전 등의 **물리적 장애**는 물론이고, 잘못된 입력[→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이나 자원의 한계를 초과하는 요청[→ 시스템이 더 이상 연산하기 힘들 정도로 부하가 많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추가된 복잡한 연산 요청, 0으로 나뉘야 하는 상황[→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등으로 인해 **논리적 장애**도 발생할 수 있다.

[Rew] 문단2-2), 6)에서 언급한 장애들의 유형이겠다.

- 2) 장애 발생 시에 데이터를 **원래의 상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복구하려면

[맥락 짚기] ‘원자성’과 ‘지속성’에 따르면 데이터는 ‘트랜잭션이 수행되기 전 상태’로 복구되거나 ‘트랜잭션이 수행된 상태’로 복구되어야겠다.

- 3) 로그 파일의 참조가 필요하다. **로그 파일**이란 연이어 진행되는 트랜잭션들의 시작과 커밋, 데이터베이스 변경 등에 관한 작업 진행 정보인 **로그**들을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파일이다.

⇒ 데이터 복구를 위해서는 먼저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로그 파일’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4) 하나의 로그는 ‘트랜잭션 번호, 작업, 변수, 이전 값, 이후 값’의 형태를 띤다. 예컨대 ‘T3, 변경, P, 100, 200’은 트랜잭션 T3에서 데이터베이스의 P값[→ 변수]을 100에서 200으로[→ $P = P + 100$] 변경했음[→ 작업]을 뜻한다.

⇒ 이런 ‘로그’들이 나열된 것이 로그 파일인 셈이겠다. 그래서 데이터 복구를 어떻게 수행하겠다는 건지는 아무래도 좀 더 읽어 봐야겠다.

문단5 : 데이터 복구

- 1)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로그 파일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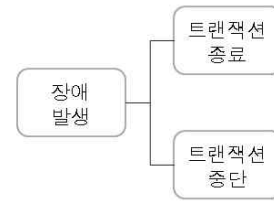
⇒ 문단1에서 언급된 트랜잭션을 T4라고 하자. 이 트랜잭션이 장애 없이 끝까지 수행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로그 파일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짧은 트랜잭션에 중간 커밋이 있을 리는 없으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 중간 커밋을 한다고 가정하자.] 다만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로그 파일에 뭔가 문제가 생길 텐데

번호	로그
1	T4, 시작
2	T4, 변경, X, 100, 0
3	T4, 중간 커밋
4	T4, 변경, Y, 200, 300
5	T4, 최종 커밋

- 2) 먼저 장애 시점에 진행되던 트랜잭션이 종료되었는지[→ ‘최종 커밋’이 실행되었는지] 혹은 중단되었는지[→ ‘최종 커밋’이 실행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한다.

⇒ 한마디로 장애 시점이 5번 로그 이후인지, 그 이전인지를 판단한다는 얘기겠다.

[맥락 짚기]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 3) 그 결과 해당 트랜잭션이 **마무리되지 못했**고[→ 중단되었고] 어떠한 **커밋**도 없었다면[→ ‘최종 커밋’은 물론이고 ‘중간 커밋’조차 없었다면] 트랜잭션의 진행 자체를 무효화하고 **필요한 트랜잭션**[→ 완료되어야 하는 트랜잭션]을 다시 진행하면 된다.

[Rew] 로그 파일에 ‘중간 커밋’조차 없다면 모든 연산은 버퍼에서만 이루어졌을 뿐, 실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무것도 복구할 필요가 없다. 버퍼에 남은 것이 있다면 다 삭제하고, 그저 해당 트랜잭션을 ‘다시 진행’하면 그만이다.



- 4) 그런데 각 로그는 연산이나 커밋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기록되므로, 로그 파일에 **최종 커밋까지 기록되어 있으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최종 커밋이 실행되지는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5번 로그가 기록된 직후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 5) 그런 경우에 한해 로그 파일을 참조하여 **재실행**을 한다. ‘재실행’은 트랜잭션에 관한 로그들 중 데이터 변경에 관한 것들을 처음부터, ... [순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 연산을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 그저 버퍼에 적재된 최종 변수값들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면 그만이다. 한마디로 2번, 4번 로그를 다시 반영하면 그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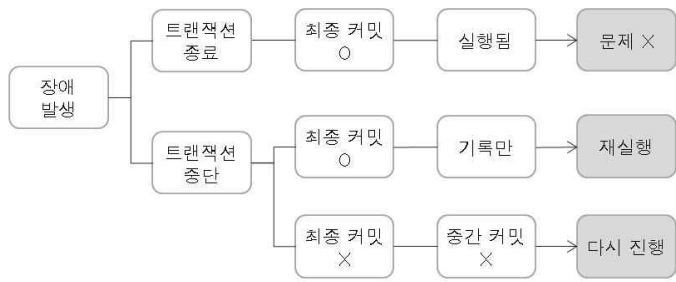
[참조] 사실 재실행을 하지 않고 트랜잭션을 다시 진행해도 결과는 같다. 다만 트랜잭션을 다시 진행하면 연산들을 다시 해야 한다. 이미 연산이 완료되어 로그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므로 ‘재실행’을 하는 것이 컴퓨터 자원이나 시간을 덜 소모하는 방법이다.

번호	로그
1	T4, 시작
2	T4, 변경, X, 100, 0
3	T4, 중간 커밋
4	T4, 변경, Y, 200, 300
5	T4, 최종 커밋

- 6) 혹은 **중간 커밋 이후부터**[→ 중간 커밋 이전의 변경 사항들의 경우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 비록 ‘최종 커밋’이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중간 커밋’[→ 3번 로그]은 실행됐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2번 로그는 이미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 만큼 4번 로그만 반영하면 되겠다.

[맥락 짚기] 그렇다면 ‘최종 커밋’이 실제로 실행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고? 그게 곧 ‘트랜잭션이 종료된 경우’겠다. 이 경우에는 트랜잭션의 결과가 데이터베이스에 잘 보존된 셈이니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겠다.



7) 한편 로그 파일에 중간 커밋 이후까지 담겨 있고 중간 커밋이 실제로 실행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반영된 경우에는] 로그 파일을 참조하여 ‘되돌리기’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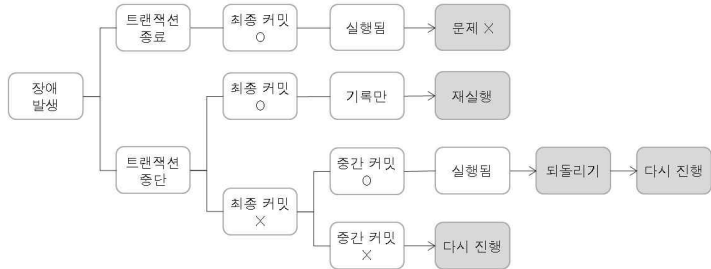
[주목] 5), 6)과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겠다. ‘재실행’은 최종 커밋이 기록되어 있지만 실행되지 않았을 때에 한해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되돌리기’는 ‘최종 커밋’이 아예 로그 파일에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 커밋’만 실행되었을 때 이루어진다.

8) ‘**되돌리기**’는 로그 파일에서 해당 중간 커밋[→ 실행된 중간 커밋]의 이전 로그들 중 데이터 변경에 관한 것들만 거꾸로 따라가며 트랜잭션이 수행되기 전 상태로 데이터들을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 3)의 ‘다시 진행’이든 5)의 ‘재실행’이든 결과적으로 트랜잭션이 수행된 상태로 데이터를 복구한다. 이와 달리 ‘되돌리기’는 트랜잭션이 수행되기 전 상태로 데이터를 복구한다. 그래서 로그를 거꾸로 따라가며 복구해야 한다. 물론 아예 실행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9) 필요한 트랜잭션은 ‘되돌리기’로 복구한 후[→ 해당 트랜잭션이 수행되기 전 상태가 된 후] 다시 진행한다.

⇒ ‘되돌리기’에 의해[→ ‘중간 커밋’ 이전의 데이터 변경도 되돌려졌기 때문에] 사실상 3)의 상황이 된 만큼 마찬가지로 해당 트랜잭션을 ‘다시 진행’하면 그만이겠다.



[팩트 짚기] 그렇다면 ‘최종 커밋’은 기록조차 되지 않았고 ‘중간 커밋’이 기록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복구가 이루어질까? 중간 커밋이 기록만 되어 있다는 것은 데이터 변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또한 3)의 상황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해당 트랜잭션을 다시 진행하게 되겠다.



[34~37] 예술 : 마네의 작품 세계에 대한 두 해석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예술 - 서양 회화 - 마네

「폴밭 위의 점심 식사」, 「파리스의 심판」, 마네, 프리드, 종합, 전통적 원근법, 당대 예술계, 평면성, 콩파농, 재해석, 보들레르, 전통적 회화, 현대적 회화, 인상주의

* 지문 분석

문단1 : 마네의 작품 세계

- 강이 흐르는 한적한 숲속에서 남녀 두 쌍이 피크닉을 즐기는 장면을 담은 마네의 「폴밭 위의 점심 식사」(1863)는 르네상스기의 거장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에서 자세나 시선 처리 등을 차용한 작품이다.
⇒ 직접 보고 가자. 위쪽이 마네의 작품이고 아래쪽이 라파엘로의 작품이다[→ 정확히는 라이온디의 복제품이다. 원작은 이미 소실되었다.]. 어디를 차용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면 아래쪽 그림 하단의 박스 안을 주목하자.



- 이렇게 원작의 일부[→ 신화적 장면을 다룬 작품]를 떼어 맥락이 전혀 다른 작품[→ 남녀 두 쌍이 피크닉을 즐기는 작품]에 부분적으로 차용한(마네)의 작품들은

⇒ 이런 식의 차용을 한두 번 한 게 아닌가 보다.

- 거장들의 작품을 익숙해하던[→ 고전을 옹호하는] 평론가와 관객들로부터는 어설픈 모방이라는 야유를, 근대를 여는 새로운 회화를 기대하던[→ 고전을 벗어나고자 한] 사람들로부터는 과거로의 회귀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 어느 쪽이든 이러한 ‘마네’의 작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마네는 당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살롱전에 위 작품을 출품하였지만 낙선하였다. 심지어 위 작품은 살롱 낙선작들을 따로 모아서 전시한 장소에서도 사람들의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참고] 근대성(modernity) : 과거를 폐기하고 현재의 특수성에 주목하려는 특징으로 ‘바로 지금’을 뜻하는 라틴어 ‘modo’에서 비롯되었다. 근대를 열었다고 평가받는 글인 「현대 생활의 화가」에서 보들레르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는 열망이 담긴 이데올로기적 가치이다.

문단2 : 프리드의 해석

- 거장의 작품을 차용한(마네)의 의도와 관련하여(프리드)는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의 전환기에 다른 분야가 그러하듯[→ 예술이 아닌 분야에서도 전환기에 ‘종합’이 이루어지듯이], 마네가 회화에서 「종합」을 통한 계승과 발전의 전략을 택했다고 본다.

[맥락 짚기] ‘마네’의 작품 세계에 대한 ‘프리드’의 해석이다.

⇒ 마네의 목표가 ‘전통 사회의 가치’를 계승하여 ‘근대 사회의 가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데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 거장의 작품들에서 엿볼 수 있는 A.전통적인 것들과 함께 B.새로운 것들을 ‘종합’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 한마디로 마네의 작품은 ‘A와 B의 종합’을 지향한 결과인 만큼 ‘어설픈 모방’도 ‘과거로의 회귀’도 아니라는 평가다.

- 프리드는 「폴밭 위의 점심 식사」에 인물화나 풍경화의 기법 외에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정물화 기법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A.전통적 장르들 모두를 아우르려는 시도로 보았다.

⇒ 그런가 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과거의 모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과거의 가치를 한데 모으려는 시도로 봐야 한다.

- 또한 프리드에 따르면 마네는 단지 과거를 집약한 것[→ 3)]에 그치지 않고, A.전통적 원근법을 따르면서도 B.이를 무시하는 새로운 기법을 공존[→ ‘종합’]시킴으로써 발전적인 변화를 꾀했다.

⇒ 하나의 작품에 ‘전통적 원근법을 적용한 부분’도 있고 ‘전통적 원근법을 무시한 부분’도 있다는 얘기겠다.

- 예컨대 「폴밭 위의 점심 식사」에는 근경의 세 인물 외에 원경에도 한 인물을 배치하여 A.거리감을 느끼게 하면서도[→ 전통적 원근법을 따르면서도], B.명암 처리를 전통적 기법과 반대로 하여 새로운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 4)의 예시다.

[맥락 짚기] ‘프리드’에 따르면 이렇듯 마네의 작품은 A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과거의 집약, 전통적 원근법 인정], B의 가치로까지 나아가려 했다는 점[→ 전통적 원근법을 무시하는 기법 적용]에서 가치가 있다.

문단3 : 프리드의 해석에 대한 콩파농의 반박

- 이와 달리(콩파농)은 거장들의 작품에 대한 「재해석」에 마네의 의도가 있으며, 마네가 이를 내용 면이나 형식 면에서 A.전통과 단절하는 계기로 삼으려 했다고 보았다.

[맥락 짚기] 마네의 작품 세계에 대한 ‘콩파농’의 새로운 해석이다. ‘프리드’의 해석과 시작부터 정면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겠다.

프리드	콩파농
A와 B의 종합	A의 재해석 = A와 단절하려는 계기 = A 대신 B로 나아가려는 것

- 콩파농은 「폴밭 위의 점심 식사」에서 원작의 중심인물인 파리스와 여신들을 차용하는 대신에, 중심 주제와 무관한 주변부의 바다의 신들에서 자세와 시선 처리, 구도 등을 차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 마네가 라파엘로의 작품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중심이 아닌 부분을 차용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마네가 A를 중시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참조] 다시 문단1-1)의 두 그림을 확인해 보자. 확실히 마네의 작품은 라파엘로의 작품의 중심 부분을 차용하는 대신에 오른쪽 구석 부분만을 차용하였다.

- 더욱이 원작에서의 신을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신사나 여성 등 인간으로 대체한 것은 원작에 내재된 의미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다. 콩파농에 따르면 이 점은 ‘종합’으로 설명할 수 없다[→ ‘프리드’의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 더 나아가 거장의 작품을 차용하면서도 이를 전혀 다른 맥락에서 풀어냈다는 점에서 오히려 원작 안의 A의 가치를 지우려 했다는 얘기다.

[맥락 짚기] 확실히 이런 해석을 따르면 마네의 작품 세계를 ‘A와 B의 종합’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다.

문단4 : 쿵파농의 해석

- 현실을 사진보다 더 정확하게 재현할 수 없다는 당대 예술계의 고민을 담아, ...
⇒ 이런 화가의 능력 문제가 아니다. 기술의 문제다. 아무리 노력해도 '정확하고 사실적인 재현'의 측면에서 회화는 결코 사진을 이길 수가 없다. 따라서 '당대 예술계'는 회화만의 고유한 가치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 마네가 B.원근법에서 벗어난 기법들을 동원하여 회화만이 지닌 평면성[→ 회화만의 고유한 가치]에 주목하게 했다는 프리드의 견해에 쿵파농은 동의한다.
[Rew] 문단2-5)에서 프리드가 설명한 '새로운 명암 기법' 역시 회화만이 지닌 평면성을 드러내기 위한 기법 중 하나였다.
⇒ 그러한 측면에서 프리드가 지적한 B. '평면성'에 대해 쿵파농 역시 동의하였지만
- 다만 쿵파농은 [프리드와 달리] 이것이 A.원근법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폴발 위의 점심 식사」에서는 세부가 정밀하게 묘사된 정물과 달리
[주목] 그것이 A를 계승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보았다. 아무래도 이 지점에 주목해야겠다.
[Rew] 예를 들어 문단2-3)의 '정물화 기법'에 따라 정확한 재현을 지향한 부분도 있지만
- 풍경은 거친 붓질로 극도로 단순화하여 그리다 만 것 같은 B. 미완성의 느낌을 주고 있으며 윤곽선이 뚜렷한 남성 인물들의 경우 그랬다고 보다는 B. 오려 붙인 듯한 느낌을 준다.
⇒ '인물화'나 '풍경화' 기법이 적용된 부분처럼 오히려 정확한 재현에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가.
- 쿵파농에 따르면 이[→ 정확한 재현에 어긋나는 부분]는 전통적 원근법을 무력화하여 B. 평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의 산물이다.
[맥락 짚기] 이렇듯 '쿵파농'에 따르면 마네의 작품 세계는 '전통 사회'의 영향은 차단하고 '근대 사회'로 나아가려는 의지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겠다.

프리드	쿵파농
A. 과거의 집약 B. '평면성'은 A. 원근법의 발전적 계승을 위한 것	A. 과거와의 단절 A. 원근법의 무력화를 위해 B. '평면성'을 강조한 것

문단5 : 마네에 대한 평가

- 그 누구보다 마네와 친했던 보들레르는 마네의 작업 방식에 비판적이었다.
⇒ 친구한테 너무하다.
- 보들레르는 A. 교훈적 의미를 담은 전통적 소재를 A. 원근법으로 재현하는 회화를 A. 전통적 회화라 규정하고, ...
[맥락 짚기] '보들레르'가 정의한 A의 가치들이다. 이전 문단들에서 이미 살펴본 내용들이기도 하다.
- 이에 벗어나 B. 일상의 순간적 모습을 B. 화가의 상상력을 통해 [원근법을 따르지 않는] B. 낯선 이미지로 전환하는 데에 회화의 현대성이 있다고 보았다.
[맥락 짚기] '보들레르'가 정의한 B의 가치들이다. 신화의 장면을 사용하지 않고, 원근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회화라고 본 것이겠다.
[참고] 보들레르는 마네가 작품을 발표한 동일한 연도에 「현대 생활의 화가」를 발표하였다. 그 글에서 보들레르는 '현대적 회화'의 효시로 '콩스탕탱 기'라는 삽화가를 제시하였다. 보들레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기억으로 그리는 것이지 모델에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듯 보들레르는 화가의 상상력을 통해 낯선 이미지를

창조해 내는 것이야말로 '현대성'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 이에 비추어 볼 때 A. 과거를 그저 답습하는 것[→ 신화의 장면을 차용하고, 원근법을 적용하기만 한 것]처럼 보이는 마네의 방식은 못마땅한 것이었다.
⇒ 이런 보들레르의 입장에서는 마네의 작품 세계가 '전통적 회화'에 불과한 것이었다. '쿵파농'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야 친구 그림에 관심 좀 가져라, 그건 네 오해야."
- 그런데 쿵파농에 따르면 보들레르가 표방한 B. 현대적 회화를 가장 먼저 완성도 높게 실천한 화가는 다름 아닌 마네이다.
[맥락 짚기] 문단3, 4를 고려했을 때 마땅한 평가다. 마네의 작품을 '전통적 회화'를 따라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건 완전히 오해라는 얘기가.
- [라파엘로의 「파리스의 심판」과 같은] 거장의 작품을 차용하면서 오히려 교훈적 의미 작용을 제거[→ 주변 인물들을 차용하고, 그들을 신이 아닌 인간으로 바꿈으로써 원작의 맥락을 제거]하였으며, 재현적 기법을 사용하면서[→ 원근법을 사용하면서도] 그에 대한 비판을 함께 제시하여[→ 회화만이 지닌 평면성을 제시함으로써] 회화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재해석'했다].
⇒ 그대로 읽어 주면 되겠다. '보들레르'가 거장의 작품을 차용했다는 점에서 마네의 작품을 '전통적 회화'를 따라한 것으로 해석했다면, '쿵파농'은 거장의 작품을 차용한 마네의 의도가 '전통적 회화와의 단절'에 있었다는 점에서 마네의 작품을 '현대적 회화'로 해석한 것이겠다.
- 쿵파농에 따르면 교훈이나 재현이라는 속박[→ A의 속박]에서 벗어나 보들레르가 주장한 예술의 자율성을 진정으로 추구한 이는 마네였다. 거친 붓질로 순간을 묘사하는 인상주의나 의미를 알기 힘든 오늘날의 다채로운 회화들은, 평면성을 추구하는 현대 회화의 효시(嚆矢,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시작되어 나온 맨 처음)라 할 만한 마네의 작품에 많은 점에서 빚지고 있다.
⇒ 아무래도 필자는 '프리드'보다는 '쿵파농'의 해석에 좀 더 마음이 기우나 보다. 마네의 작품이야말로 '현대적 회화'의 시작이라고 봐야 마땅하다는 얘기가.

[41~45] 고전시가 : (나)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 수록 지문 평가

이 작품은 작가가 69세 되던 해인 1629년, 입암(立巖)으로 성리학자인 장현광(1554~1637)을 찾아가 교유하던 때 지은 것이다. ‘입암’은 오늘날의 행정 구역으로 포항시 죽장면 입암리에 속해 있는 냇물 속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이름인데, 장현광이 이 옆에 집을 짓고 살면서 입암을 비롯하여 주변의 경관 좋은 28개의 장소를 소재로 하여 「입암기」를 지었고, 박인로는 이를 본떠서 이 노래를 지었다. 전체 29수 가운데 처음 10수는 ‘입암’을 노래하고 나머지 19수는 각 봉우리, 고개, 연못, 계곡 등의 명승지를 한 수씩 노래하고 있다. 이로써 작가는 자연 속에서 은거할 뜻을 나타내는 한편, 심성을 닦는 데 도움이 될 이념을 찾고자 하였다. 차분하게 자연을 감상한다는 생각으로 읽어 보면 좋겠다.

* 수록 지문 분석

제1수 : 입암(立巖)

무정(無情)히[→ 아무런 생각 없이] 섰는 바위 유정(有情)해[→ 생각이 있어 서 있는 것으로] 보이도다

→ 무정하게 서 있는 바위가 유정하게 보이는구나

⇒ 바위가 우뚝 서 있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해서가 아니겠지만, 화자는 문득 그것이 무슨 생각을 품고 그렇게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다.

최령 오인(最靈吾人, 만물 중 가장 신령하다는 우리 인간)도 직립 불의(直立不倚, 무엇에도 기대지 아니하고 곧게 서 있음) 어렵거늘

→ 가장 신령한 우리 사람도 곧게 서 있기 어려운데

⇒ 사람도 그 무엇에 기대지 않은 채 곧은 태도로 살기가 쉽지 않은데, ‘바위’가 이렇게 오랜 세월 곧게 서 있는 걸 보니 사람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된다는 거다.

만고(萬古,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곧게 선 얼굴이 고칠 적이 없구나

→ 만고에 곧게 선 얼굴[→ 모습]이 변하는 때가 없구나

⇒ 화자는 ‘바위’가 아주 오랜 동안 변함없이 곧게 서 있음을 강조하며 그 ‘직립 불의’한 성품을 예찬하고 있다. 여기서 화자는 곧게 서 있다는 대상의 속성을 인간적 가치[→ 삶의 태도]와 결부하고 있다.

제5수 : 문암(問巖)

탁연 직립(卓然直立, 홀로 빼어나 곧게 서 있음)하니 본받을 직하다마는

→ 빼어나게 곧게 서 있으니 [그 모습을 남들이] 본받을 만하다마는

⇒ 화자는 ‘바위’가 곧게 서 있는 모습을 남들이 본만을 만하다고 칭송하고 있다.

구름 깊은 골에 알 이 있어 찾아오라

→ 구름이 [자옥하게 깔린] 깊은 골에 [‘바위’를] 알고 찾아올 사람 있겠는가

⇒ ‘바위’가 서 있는 깊은 계곡에 구름이 자옥하게 깔려 있어 ‘바위’의 존재를 알아보고 찾아올 사람이 없을 거라고,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나 광야(廣野,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에 읊아 모두 보게 하여라

→ 이제라도 광야로 옮겨 [가 다른 사람들] 모두가 보게 하여라

⇒ <제5수>는 화자가 ‘바위’에게 묻는 말로 되어 있다. ‘바위’의 ‘탁연 직립’이 본받을 만하지만 ‘바위’가 깊은 골짜기에 있는 까닭에 ‘바위’를 보는 사람이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너른 들로 삶의 자리를 옮기라고 충고하는 거다. 숨어 지내지 말고 사람들 앞에 나서라는 거다.

제6수 : 암답(巖答)

세정(世情, 세상의 사정이나 형편)이 하 수상하니 나를 본들 반길런가

→ 세상 형편이 참 수상하니 [사람들이] 나를 본들 반기겠는가

⇒ ‘광야’로 거처를 옮기는 게 어떠냐고 화자가 묻자, ‘바위’는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매우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터라 사람들이 자신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한다. 세상에 나아가지 않으려는 이유가 드러나 있다.

왕기 순인(枉己循人, 자기를 버리고 남을 좇음)하여 내 어디 읊아가랴

→ 나를 버리고 남을 좇아 내 어디로 옮겨가리?

⇒ 설의법을 활용하여 자기 자리를 옮기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산 좋고 물 좋은 골에 삼긴 대로 늪으리라

→ 산 좋고 물 좋은 골에서 생긴 대로 늪으리라

⇒ <제6수>는 ‘바위’가 화자에게 대답하는 말로 구성되어 있다. ‘바위’는 화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이 머무는 골짜기에 그대로 머물며 늪어 가겠노라 대답한다. ‘바위’의 관점에서, 거처를 옮겨 사람들 사이로 나아가는 것은 자신의 참됨을 버리고 남의 어리석음을 좇는 일일 수 있다. 여기에는 자신의 거처에 대한 만족감 외에도 은거하는 자신의 삶의 방식이 옳다는 자부심과 당당함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제8수 : 암답(巖答)

[참고] <제8수>는 다시 ‘바위’가 화자에게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제7수>에서 화자가 다시 ‘바위’에게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다. <제7수>에서 화자는 ‘바위’에게, 오랜 세월 이곳에 있었으니 허다한 영웅들을 만나 보았겠다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 달라고 청한다. 이제 그 청에 대한 ‘바위’의 대답을 들어 보자.

소허(巢許, 요임금 때 세상을 등지고 살았다는 소부와 허유) 지낸 후(後)에 엄 처사(嚴處士, 한나라 광무제 때 벼슬을 사양하고 은거했던 엄 자룡)를 만났다가

→ 소허가 [내 곁을] 지나간 뒤에 엄 처사를 만났다가

⇒ 소부와 허유, ‘엄 처사’는 모두 은사(隱士), 곧 은거한 선비로 유명한 인물들이다.

안타깝게 여의고 알 이 없이 버려졌더니

→ 안타깝게 [이들을] 여의고 [나를] 알 사람도 없이 [내가] 버려졌더니

⇒ ‘바위’는 자신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잊힌, 심지어 버림받은 존재였다고 말한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없이 지낸 세월이 길었다는 뜻이겠다.

오늘사 또 너를 만나니 시운(時運, 시대나 그때의 운수)인가 하노라

→ 오늘에야 또 너[→ 화자]를 만나니 운명인가 하노라

⇒ 오랜 기다림 끝에 화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바위’의 기쁨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화자야말로 은거하는 ‘바위’의 선비다운 덕성을 드물게 알아보는 인물이라는 거다. 결국 화자는 ‘바위’의 말을 빌려, ‘바위’의 덕성을 알아보는 자신 또한 ‘소부’나 ‘허유’, ‘엄 처사’ 같은 은사(隱士, 은거하는 선비)라는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제17수 : 피세대(避世臺)

시절(時節)이 하 수상커늘 벼룩에 막대 짚고

→ 시절이 참 수상하거늘 벼룩에 막대 짚고

⇒ 화자는 시절이 수상하다는 말로 당대의 사회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방수 심산(訪水尋山, 산수를 찾음)하여 피세대(避世臺, 세상을 피하여 머무는 곳이라는 뜻으로 붙인 절벽의 이름)에 들어오니

→ 산수를 찾아 피세대에 들어오니

⇒ 대개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때에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피하여 자연 속에 숨는 것이, 선비들이 생각하는 자기 몸을 보존하는 길이다. ‘수상한 시절’은 화자가 세상을 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어즈버 무릉도원도 여기런가 하노라

→ 어즈버 무릉도원도 여기인가 하노라.

⇒ ‘피세대’가 무릉도원이라는 건데, 눈앞에 펼쳐진 경치에 대한 감탄을 표현한 거겠다.

제26수 : 정운령(停雲嶺)

정운령(停雲嶺) 바라보니 천중(天中, 하늘의 한가운데)에 뚜렷구나

→ 정운령을 바라보니 하늘 한가운데에 뚜렷하구나

⇒ ‘정운령’이 하늘 한가운데로 높게 우뚝 솟아있음을 묘사한 거다. ‘정운령’은 고개 이름일 텐데, 그 뜻은 ‘고개가 아주 높아서 구름마저 쉬어 넘는 고개’라는 정도로 풀 수 있겠다.

척피최외(陟彼崔嵬, ‘저 높고 험한 산에 오름’이라는 뜻의 『시경』 구절) 하면 님 계신 데 보련마는

→ 저 높은 산에 오른다면 님 계신 데 보이겠지만

⇒ ‘정운령’ 고개가 매우 높아서 그 꼭대기에 올라서면 님[→ 임금] 계신 곳이 보일 거라고 상상한다. ‘임금님, 보고 싶어요.’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은근슬쩍 끼워 넣는 거다. ‘척피최외하면’은 상황을 가정한 진술이겠다.

병목(病目, 병든 눈. 여기서는, 늙어서 잘 보이지 않는 눈을 뜻함)에 눈물 어리니 볼 동 말 동 하여라

→ 병든 눈에 눈물 어리니 볼 동 말 동 하여라

⇒ 늙은 신하의 여전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호소하는 거다. 이 작품이 창작된 1629년 작가의 나이는 69살이었다.

제28수 : 격진령(隔塵嶺)

격진령(隔塵嶺, ‘속세와 격리해 주는 고개’라는 뜻의 지명)[→ 고개가 하도 높아서 여기서 속세로 나갈 수도, 속세에서 여기로 들어올 수도 없다는 거다.] 하 높으니 홍진(紅塵, 번거롭고 속된 세상)도 멀어 간다

→ 격진령 아주 높으니 속세도 멀어진단다

⇒ ‘격진령’ 고개가 매우 높아서 속세와 이곳을 차단해 주니, 화자가 있는 곳은 절로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 된다.

가뜩이나 먹은 귀 씻을수록[→ 요임금이 왕위를 넘기겠다고 하자, 못들을 말에 귀가 더러워졌다며 자신의 귀를 씻었다는 허유의 고사를 원용한 표현이다.] 먹어 가니

→ 가뜩이나 먹은 귀 씻을수록 [더욱] 먹어 가니

⇒ 귀를 씻을수록, 다시 말해 속세에 마음을 두지 않으려 할수록 점점 더 속세의 일이 관심 밖으로 멀어져 간다는 의미겠다. 속세의 일에 마음 두지 않으려 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산(山) 밖의 시시비비(是是非非,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툼)를 듣도 보도 못할로다

→ 산 밖[→ 속세]의 시시비비를 듣도 보도 못 하겠구나

⇒ 속세의 ‘시시비비’를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속세의 시비는 결국 ‘귀 씻을’ 일과 관련되어 있는데, 귀를 씻어야 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

